『종교학연구』 제41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3, pp.25-49

예언과 공간*
: 『정감록』의 공간과 그 유형을 중심으로

고 마 리**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정감록 공간의 유형들
  1. 신왕도(新王都) 형
  2. 십승지(十勝地) 형
  3. 피장처(避藏處) 형
  4. 흉지(凶地) 형
Ⅲ. 예언, 공간, 실천의 감응
  1. 예언의 단계와 공간
  2. 공간의 강화와 변용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정감록』[1]이 처음으로 관찬사료에 등장했던 18세기를 시작점으로 삼는다고

---

* 이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편집 및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본고는 감결(鑑訣)류의 문헌과 기타 비결류의 문헌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감록'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감록의 원류로 알려진 「감결」

해도, 일제강점기와 해방에 이르기까지 질곡의 역사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의 여운이 짙게 배어 있다.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된 염원이 종교촌의 형성으로 드러난 계룡산 신도안이 1980년대 '6·20재개발사업'으로 해체되면서, 정감록에 대한 기억은 미신의 일종으로 전락하면서도 뜻밖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언에 대한 신비가 사라져 가는 오늘날에도 명당을 가릴 때는 어김없이 조선시대 비기(祕記)의 이름을 빌리곤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명맥 있는 길지(吉地)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정감록』이나 '십승지'라는 표현이 흔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뜻 사라진 예언의 구절들이 특정 공간을 성별(聖別)하여 배타적인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감록이 현실의 지명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실제와 이상의 묘한 경계에 있는 '예언의 공간'은 누구든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공간을 장악하려는 실천을 부추겼고, 예언에 대한 기억과 공감이 재생산될 수 있었던 큰 동력이었다는 생각이다. 장소는 과거의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 '공간'과 '장소'는 여전히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간(장소)을 공허한 무언가가 아닌, 시간의 역동성을 지닌 연구 대상으로 주목하는 것 자체가 정의의 문제에 앞서는 과제이다.[3] 그간의 정감록 연구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은 두드러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4] 대개 부

을 주로 분석하되, 일부 비결류 문헌을 함께 다룬다. 여기에서 분류한 공간 유형을 기타 정감록류에 적용하여 비교하는 작업은 후속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편, 정감록사상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감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문헌의 형태를 지칭할 때는 『정감록(鄭鑑錄)』으로 표기한다.

2)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186-187.

3) 도린 매시 (Doreen Massey),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448.

4) 종교학에서 공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황선명, 「복전 사상을 통해 본 한국 종교문화의 특질」, 『종교와 문화』 3 (1997): 205-216; 황선명, 「십승지고」, 『종교와 문화』 5 (1999): 157-171;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종교와 문화』 27 (2014): 27-55; 양승목,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행방」, 『한국한문학연구』 63 (206): 97-133; 고마리, 「정감록에 나타난 계룡산의 성지화 연구」, 석사

분적으로 다뤄졌던 예언의 공간을 조명하여 기존의 연구 주제를 종합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연구자들이 달성해온 소기의 성과에 기대어[5], 의미부여나 실천 등이 공간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정감록에 나타나는 공간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료인 『비결집록(秘訣輯錄)』(奎7568)에서 공간들을 도출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명과 지리적 분포, 그리고 예언의 구절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서로 대립적이거나 유사한 유형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밝히며 정감록에서 공간에 대한 서술이 차지하는 기능을 탐구할 것이다. 또한 실제 공간을 중시한 역사적 실천의 양상을 간략히 다루며 앞의 분석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정감록 공간의 유형들

현실의 지명을 사용하는 정감록의 서술방식은 『택리지(擇里地)』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의 성격을 일면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의 공간을 단순히 지리적 정보의 나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택리지』 등에서 공간은 인간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3.

5) 공간과 장소의 용법은 하나를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배경으로, 다른 하나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식으로 연구되었다. 장소가 공간에 맥락을 부여한다고 했던 에드워드 랠프(Edward Relph)나, 장소를 '공간에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고 본 이푸 투안(Yi-Fu Tuan) 등은 의미부여나 실천이 공간을 장소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드 세르토(Michael de Certeuau)는 공간이야말로 물리적 장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1976.;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Michael De Certeau,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본고의 관점은 장소, 실천, 의미를 포함하는 드 세르토의 공간 정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론의 내용을 섬세히 살펴야 하지만, 공간 연구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단계에서 갈음하기로 한다.

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형, 자원, 기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감록은 지도상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가져와 무미건조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간이 국가와 민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예언적 관점에서 새로운 국토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정감록의 공간들은 특정 예언과 연계되어 있으며,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게 하는 지침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예언에 언급된 곳들은 일상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현존하는 정감록류의 필사본과 간행본에 언급된 공간을 신왕도(新王都) 형[6], 십승지(十勝地) 형, 피장처(避藏處) 형, 흉지(兇地) 형으로 분류하여 예언의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6)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첫 번째 유형을 '신왕토(新王土) 형'으로 명명하였으나,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신왕도(新王都) 형'으로 변경하였다. 본래 '왕기가 서려있는 땅' 혹은 '왕권이 발흥하는 근원지'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으나, '왕토(王土)'가 '왕이 다스리는 국토'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유형	신왕도(新王都)	십승지(十勝地)[7]			피장처(避藏處)	흉지(兇地)
		이심 계열	남사고 계열			
			이심 계열 부록	남사고 류		
목록	계룡산 가야산 전주 송악	풍기 예천 안동 화곡 개령 용궁 가야 단양 영춘 공주 정산 심마곡 진천 목천 봉화 운봉 두류산 태백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행촌 예천 금당실 공주 계룡산 영월 정동 무주 무풍 부안 호암 합천 가야산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두류산 예천 금당동 공주 유구마곡 영월 정동 무주 무풍 부안 호암 가야산	양주 양평 인천 영종도 춘천 기린곡 낭천 대미촌·소미촌 정선 가평 곡산 명미촌 충주 월악산 아래 경상도 내성 북면·춘양면 강원도 강릉·삼척·평해·울진 충청도 비인·남포·담양 전라도 무주 원학동 풍기 차령 금계촌 안동 북면 소라국 단양 가차촌 단성 북면·동양면 여주 사전촌 광주 율평 이천 광복동	안성과 죽산 사이 인천과 부평 사이 여주와 광주 사이 수성과 당성 사이 금강산 서쪽과 오대산 북쪽 황해도와 평안도 (양서지방) 동쪽 산골 (강원도) 전주와 호중의 진화 사이 용문산과 오대산 목멱산 . . . (이하 생략)

[표1] 정감록의 공간 유형과 목록

7) 십승지 목록은 두 가지 버전, 즉 이심 계열과 남사고 계열이 전해진다. 이(李)와 정(鄭)의 대화체로 전개되는 이심 계열에서는 해당 지명을 간략히 목록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를 따르는 남사고 계열은 상대적으로 긴 지명을 사용하여 십승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비결집록』의 경우, 대화체에서는 이심 계열을 내세우고 있으나, 뒷부분에 남사고 계열의 부록을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십승지 목록이 간격을 두고 모두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지명만을 두고 비교하자면, 풍기, 안동, 운봉, 예천, 공주, 가야는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보은, 영월, 무주, 부안 등은 남격암 전승 목록에만 나타나며, 김천(개령용궁), 단춘(단양영춘), 진목(진천목천), 태백 등은 이심 계열에만 포함되어 있다. 남격암 전승과 유사한 목록은 「징비보장」, 「운귀기책」 등에 나타난다. (최종성,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의 검토」, 『종교

[그림1] 정감록 공간의 위치와 분포

유형별 위치와 분포를 표시한 [그림1]을 보면, 정감록에 나타나는 공간들이 주로 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 ‘병화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숨어 살 만한 곳’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신왕도 형과 십승지 형의 남쪽 편향이 두드러지는데, 정씨진인이 남쪽에서 출현하여 왕조를 개창할 것이라는 ‘남조선신앙’의 지리적 기원

학연구』 40 (2022): 21.)

을 발견할 수 있다. 최남선, 황선명 등이 주목했던 남조선신앙[8]은 예언에 의해 재구성된 국토와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관념이기도 하다. 반면, 한강 이북은 양서지방이라고 불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 흉지가 넓게 분포해 있다. 이렇게 남북으로 이분화된 공간 분포는 정감록의 초기 창작자들이 가진 자기 지역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백승종은 정감록의 발상지를 서북 지역으로 유추하며, 암울한 현실의 배경이 되는 거주지에 대한 절망스러운 인식이 흉지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겼다.[9]

또한 흉지 형은 단일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양서지방을 통틀어 도적 떼와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한 흉지라고 지정하거나, 지역과 지역 '사이'를 부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흉지 형은 다른 공간 유형과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동쪽 산골이라 불리는 강원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넓게는 흉지 형에 속하는 강원도 역시 내부에는 십승지와 피장처를 품고 있는 형국이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공간 유형들이 공존, 대립, 중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예언과 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들의 복잡한 접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1]의 분포를 상기하며 각 유형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 신왕도(新王都) 형

신왕도 형에는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을 대체할 새로운 왕조의 중심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속한다. 정감록은 왕씨(王氏)[10]의 계보와 함께 각 왕조가 도읍할 왕도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도는 권력을 거머쥔 특정 인물과 왕조의 도래를 전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읍지로 거론

8)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이영화 옮김 (파주: 경인문화사, 2013);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5).

9) 백승종, 「18세기 전반 서북(西北) 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鄭鑑錄)》」, 『역사학보』 146 (1999): 103-109.

10) '왕씨(王氏)'는 고려 왕씨와 같이 특정 성씨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누리고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 될 잠재력을 가진 성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된 곳들은 현 권력을 부정하고 반역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정감록에 내재한 왕조교체사상과 직결된 곳들이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권력이 땅에 귀속되어 있다고 여겼던 전통적인 공간관이 반영되어 있다. 지맥(地脈)의 흐름을 근거로 신왕도를 지정하는 정감록의 서술에서 이러한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 곤륜산으로 온 맥이 백두산에 이르렀고, 원기(元氣)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평양은 이미 천년의 운이 지났기 때문에 송악 오백년의 땅으로 옮겨갔다. 요승(妖僧)과 궁녀가 난을 일으켜 땅의 기운이 쇠하고 하늘의 운이 막혀서 운이 한양으로 옮겨갔다.[11]

> 내려온 맥의 운이 금강산으로 이동하여 태백산과 소백산에 이르게 되고, 산천의 모인 기(山川鍾氣)가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 팔백년의 땅이다. 원맥(元脈)인 가야산은 조씨 천년의 땅이다. 전주는 범씨 육백년의 땅이다. 송악에 이르니 왕씨가 복흥(復興)할 땅이다. 나머지는 상세하지 않아서 살필 수 없다.[12]

왕조의 변천과 역사의 흐름이 땅의 기운에 달려 있다는 것은 신왕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논리이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은 지맥의 원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포함하는 예언은 지맥의 존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예언의 신빙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덕분에 한양을 대체할 계룡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증폭되고 있다. 나아가 가야와 전주로 이어지는 왕도에 매우 구체적인 유지 기간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기운이 위치한 곳이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원리가 담겨 있다. 전통적인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도읍지에 서린 왕기(王氣)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되면 국가의 운명도 바뀐다는 사상이 신

---

11) 『秘訣輯錄』(奎7568) "自崑崙來脈, 至白頭山, 元氣至于平壤, 平壤已過千年之運. 移于松岳, 五百年之地. 妖僧宮姬作亂, 地氣衰敗, 天運否塞, 運移于漢陽 (중략)."

12) 『秘訣輯錄』(奎7568) "來脈運移金剛, 至于太白【在安東】·小白【在 】, 山川鍾氣, 入於鷄龍山, 鄭氏八百年之地. 元脈伽倻山, 趙氏千年之地. 全州范氏六百年之地. 至於松岳, 王氏復興之地. 餘未詳, 不可攷也."

왕도 형에 나타난다. 예부터 도읍의 기운을 점치고 천도를 하거나 반란을 도모했던 역사의 저변에는 '공간화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정감록 역시 같은 사상에 기대어 왕도에 따라 왕조교체의 흐름을 예언하고 있다.

송악 (왕씨)	한양 (이씨)	계룡 (정씨)	가야 (조씨)	전주 (범씨)
500년	-	800년	1000년	600년

[표2] 지맥의 흐름에 따른 왕조교체

국가의 운명은 왕기가 어떤 공간으로 응집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감록에서는 공간이 시간을 주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언제' 예언이 실현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왕도를 확보했는가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예언을 위시하여 권력 찬탈을 시도했던 세력들은 조선 망국의 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 최초의 정감록사건으로 여겨지는 기축옥사(1589)[13]에서는 계룡산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주모자인 정여립은 '팔룡(八龍)'이라는 환호(幻號)를 사용해 스스로를 진인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것은 정씨와 계룡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으로, 이미 특정 성씨와 도읍지에 대한 예언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기축옥사의 공간 모티프는 이후의 반란 모의 사건에서 모방되곤 했다. 특히 1728년(영조 15) 발생한 무신란은 정팔룡이라는 진인의 별칭이 재등장한 사건으로, 약 140년의 간극을 넘어 지속되는 신왕도의 대두를 보여준다. 당시 중앙 지배 권력에 불만을 가진 여러 세력들은 다양한 사상을 동원해 반란에 가담했다. 이때 민중을 선동하기 위해 퍼뜨린 예언에는 정감록의 요소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정팔룡 혹은 정도령[14]이라고 불리는 변산(邊山)의 장수가 반란군을 지휘할 것이라는

13) 이능화, 『朝鮮基督敎及外交史』 下編 (京城: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19.
14) 정씨 진인의 유사 형태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명칭이다. 실제로 『정감록』 정본화 과정에서 정도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신회의 주장에 따르면, 1728년

소문이었다.[15] 이것은 혁세의 주인인 정씨와 그의 땅이 지속적으로 반란의 모티프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신왕도라는 공간적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예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한양의 왕기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도읍만 획득한다면 반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관념"[16]이 역모 사건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 십승지(十勝地) 형

이 유형에는 왕기가 쇠하여 지맥이 이동할 때 벌어지는 여러 변란을 피하여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열 곳의 승지가 속한다. 십승지는 산수법과 풍수법을 근거로 채택된 명당으로, 십승지의 선별에 대해 정감록 화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곡식 종자는 삼풍(혹은 양백)에서 구하고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할 것이니, 이 열 곳은 병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흉년이 들지 않는다[17]

> 영원히 살 만한 땅이며, 어진 재상과 훌륭한 장수가 잇달아 난다[18]

상기의 구절을 통해 십승지가 단순히 병화로부터 몸을 피하는 임시방편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적 자원의 조달이 용이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고, 새로운 왕조의 개창에 참여할 인재가 날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십승지가 필요한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신왕도 형과 마찬가지로 왕조교체의 예

(영조 4) 무신란 주동자들이 정씨 진인을 정도령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김신회,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한국문화』 84 (2018): 229-230.)

15) 『영조실록』 권16. 영조 4년 3월 16일 병인.

16)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종교와 문화』 27 (2014): 34.

17) 『秘訣輯錄』(奎7568) "求穀種於三風【或豊】, 求人種於兩白, 此十處, 兵火不入, 凶年不入 (중략)."

18) 『秘訣輯錄』(奎7568) "乃永居之地, 賢相良將. 繼繼而出."

언적 맥락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신왕도와 십승지가 조선말의 상황에 대해 상이한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각 공간은 이용 계층과 그들이 욕망하는 삶의 형태에 있어서 구분된다. 계룡산 등은 현재의 중앙 권력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며 후속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십승지는 중앙에서의 대결과는 거리를 둔 채, 몸을 보신하여 차기 왕권의 도래를 기약하는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이 권력지향적인 인물들의 공간이라면, 십승지 형은 권력보다는 생존이 중요했던 민중들의 생애지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미래의 권력을 보장하는 곳이라면, 후자는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곳에 가깝다. 그러므로 십승지는 신왕도에 대한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작용하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의 차이는 「감결」에서 십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논하는 구절을 통해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은 표현들은 계룡산이 특정 성씨에게 허용된 것처럼, 승지도 아무에게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언이 요구하는 조건은 '지각이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다.

> 어느 세월이 흘러, 어느 해를 맞이하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살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죽고 말 것이다.19)

> 후세 사람이 지각이 있어 먼저 십승지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는 살고 부자는 죽으리라.20)

> 부자는 돈과 재물이 많은 연고로 섶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는 일정한 수확이 없으니 어딜 가든 빈천하게 살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때를 살펴 행동해야 할 것이다.21)

---

19) 『秘訣輯錄』(奎7568) "経某歲, 當某年, 有知覺者生, 無知覺者死."
20) 『秘訣輯錄』(奎7568) "後人若知覺, 則先入十勝, 而貧者生富者死."

여기에서 '지각자'는 지식인의 여부라기보다 정감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조의 존속이 자연의 원리, 즉 지맥의 원리를 따른다는 관념을 수용하며, 예언에 따라 망국의 징조들을 포착하여 왕조교체의 때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인물만이 십승지에서 몸을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서술은 당시 정감록 사상을 공유하던 민중들이 가진 일종의 연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체제변혁의 열망과 예언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감대가 십승지에 출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은근한 배타성은 부를 축적한 사람, 즉 정계의 지식인들 혹은 귀족에 대한 반감을 내재하고 있다. 민중의 불만은 일차적으로는 왕가를 향하는 것이었지만 빈천한 삶을 모르는 중앙의 세력가와 부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십승지 형은 당시 민중이 가진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만의 공상적인 '이상사회'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22)]

3. 피장처(避藏處) 형

피장처 형은 혼란을 피하여 은거하기 좋은 공간의 목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십승지 형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비결집록』 중 「피장처」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이 유형은, 대부분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렵도록 깊고 험준한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피장처」의 화자는 이 곳을 복거지지(卜居之地) 또는 보길지지(保吉之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사한 평가가 『택리지』 중 「팔도총론(八道總論)」이나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 드러나고 있어, 피장처가 인문지리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재등용과 특산물을 들어 지역의 이점을 밝히고 지리적 위치를 상술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둘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1) 『秘訣輯錄』(奎7568) "富者多錢財, 故負薪入火也, 貧者無恒産之致, 安往而不得貧賤哉. 然而稍有知覺者, 觀其時而行."

22)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1998): 228.

피장처 형은 한양 근처와 강원도 일대에 밀집되어 있으나, 한강 이남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어 십승지와 지리적 위치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피장처 목록 중에는 십승지와 중복되거나 근접한 곳이 다수 발견된다. 이처럼 공간의 분포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몇 가지 이유에서 두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두 유형은 각각을 제시하고 있는 「감결」과 「피장처」의 맥락에서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다. 십승지 형은 「감결」을 관통하는 왕조교체기의 혼란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 공간에 가깝다.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십승지는 이-정 교체기의 전후 사정 내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피장처」는 망국의 서사와 별개로 은거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열 개로 고정된 채 전승된 십승지 형과 달리, 피장처는 훨씬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차이도 두드러진다. 심지어 흉지로 지정된 곳에서도 피장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결」의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감상마저 든다. 무엇보다 지명만을 제시하여 예언의 신비함을 고조시키는 십승지 목록과 다르게, 피장처는 해당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자세한 안내를 곁들이고 있다.

> 춘천 기린곡은 가장 깊고 궁벽하며, 또 불곡이 있는데 낭천 경계에 인접해 있다. 소양강으로부터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 한줄기가 골짜기 입구에서 암벽 사이로 떨어져 내리는데, 암벽은 가파르고 길이 끊어져서 나무 시렁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출입해야 한다. 그런데 20리쯤 험한 구역으로 들어가면 뚫린 골짜기가 살만한데, 귀한 것은 생선과 소금이라 외부인이 거처할 수 없다.[23]

> 곡산에 명미촌이 있는데, 서쪽 10리에 조음동이 있고, 그 서쪽 희녕 경계는 난이 있을 때 마땅히 들어가면 각각 무사할 것이니, 당연히 명미촌을 복거(卜居)할 것이다.[24]

상대적으로 방대한 목록과 구체적인 설명에 근거하면, 피장처는 '살기 좋은 곳'

---

23) 『秘訣輯錄』(奎7568) "春川琪隣谷, 最爲深僻, 又有佛谷, 接狼川界. 自昭陽溯流, 上有一水, 自谷口岩壁間, 墮下, 壁峻路絶, 以木架作梯出入乃可. 二十里崎區, 旣入豁然可居所, 貴者魚塩, 而外人不處也."

24) 『秘訣輯錄』(奎7568) "谷山有明媚村, 西面十里鳥音洞, 西面熙寧境, 有亂當入, 各無事, 當卜居明媚."

이라는 주제를 공유하는 십승지의 확장판이라고도 유추할 수 있다.[25] 이미 십승지 목록 안에서도 이심 계열과 남사고 계열 사이의 오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지역을 상세히 거론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남사고 계열이 피장처의 서술방식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십승지론이 확장과 파생이라는 변화를 거쳐 왔다는 증거로도 생각된다. 즉, '살 만한 곳'에 대한 논의가 이심 계열 십승지-남사고 계열 십승지-피장처로 확장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26] 생존을 결정하는 공간인 만큼, 이심 계열의 단순함에 불만을 느낀 민중들의 갈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십승지가 왕조교체의 맥락을 잃어버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통하면서 피장처와 혼용되는 경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고향이나 거주지에서도 숨겨진 길지를 찾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로 유추할 수 있다.

4. 흉지(兇地) 형

마지막 유형은 국말에 발생하는 전쟁, 전염병, 기근과 홍수 등 변란이 예견된 흉지 형이다.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산수지법을 근거로 지정되었으나, 지역간에 걸쳐있거나 산맥을 따라 넓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에 대해 평할 때는 풍수적으로는 길지여도 이씨의 땅에 속할 경우, 이미 기운이 쇠하였다고 하여 계룡산과의 대비를 극대화하고 있다. 각처에서 일어날 망국의 징조들은 대개로 다음과 같이 예고되어 있다.

> 신년(申年) 봄 3월, 성세(聖歲) 가을 8월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서** 밤중에 배 천척이 닿을 것이다. **안성(安城)과 죽산(竹山) 사이에** 쌓인 시체가 산과 같을 것이며, **여주(驪州)와 광주(廣州) 사이에** 사람의 그림자가 영영 끊어지고, **수성(隋城)과 당성(唐城) 사이에** 흐르는 피가 내천을 이루고, 한강 남쪽 백리에 닭과 개의 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그림자도 끊어질 것이다.[27]

---

25) 양승목,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연구』 63 (2016): 111-113.

26) 양승목,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113-114.

금강산 서쪽과 **오대산 북쪽**은 12년간 도적의 소굴이 되고, 9년의 수해와 12년의 병화가 있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겠는가?[28]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의 눈으로는 **용문산**을 은신의 방편으로 삼을 것이다, 산수법에 따라 보면 겉으로는 생기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용문산은 한양(漢陽)에 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기세가 다 죽은 혈이다, 후세 사람이 이 산에 살면 오대산 북쪽의 도적들이 수색할 것이니, 일 년이 못되어 만 명의 목숨이 재가 될 것이다.[29]

정감록이 예언한 흉흉한 징조들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대응되며 예언의 임박함을 강화하기도 했다. "안성과 죽산 사이에 쌓인 시체가 산과 같을 것"이라는 구절은 '이인좌의 난', 즉 무신란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중앙 권력을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경쟁에서 촉발된 무신란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한 조선후기 최대의 변란이었다. 1728년 3월 15일 이인좌가 청주성을 함락한 것을 기점으로, 이들 세력은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과 죽산으로 북상하였다. 이들이 관군에 의해 격파되면서 반란이 진압되었던 곳이 바로 안성과 죽산이었다. 이처럼 경험적 사실로 증명되는 예언은 조선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분위기를 형성했을 것이다. 악지(惡地)가 넓은 지역에 걸쳐 있고 흉조의 내용이 혼란한 시기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형에 관한 예언의 적중은 정감록 추종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흉지에서의 사건은 계룡산에서의 건국 시도와 십승지로의 이주 등 여타 공간 유형에서의 실천을 야기하는 촉매제였다고도 볼 수 있다.

---

27) 『秘訣輯錄』(奎7568) "三人相對, 何所不言. 申年春三月, 聖歲秋八月, 仁富之間, 夜泊 千艘. 安竹之間, 積尸如山, 驪廣之間, 人影永絶, 隋唐之間, 流血成川, 漢南百 里, 鷄犬無聲, 人影永絶."

28) 『秘訣輯錄』(奎7568) "金剛之西, 五臺之北, 十二年賊穴, 九年之水, 十二年兵火, 何人避之乎?"

29) 『秘訣輯錄』(奎7568) "後世之愚眼, 以龍門爲隱身之方. 盖山水之法, 以外言之有生氣, 然而已奪氣於漢陽, 故中氣勢, 皆死穴也. 後人若處此山, 則五臺之北, 賊民搜 探, 不一年之內, 萬命灰死."

Ⅲ. 예언, 공간, 실천의 감응

1. 예언의 단계와 공간

각 유형이 대변하는 예언의 주제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감록에서 공간은 화자의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그림1]에서 유형별 분포가 독립적이면서도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 것처럼, 유형간의 관계 역시 심층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예언적 공간이 가진 전략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려되는 공간과 기피되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생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생의 단절, 즉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정감록의 화자가 산수지법에 따라 길하다고 판단한 곳들은 신왕도, 십승지, 피장처에 속한다. 여기는 지맥이 방금 이동하여 생명력이 가득한 곳이거나, 물자와 인력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곳은 이미 왕기가 쇠한 한양이 대표적이다. 지맥을 소실한 도읍지는 왕조의 죽음을 야기할뿐 아니라, 민생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부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말년의 징조가 발생하는 흉지는 피로 물들고 인명이 소멸한다고 하여 앞의 유형들과 대조되는 디스토피아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예언에서 권장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공간에서 보장하는 삶의 형태와 주체를 기준으로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신왕도 형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지로서, 권력지향적인 주체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그에 반해 십승지 형과 피장처 형은 중앙의 권력 투쟁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일반 민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들이었다. 즉, 공간이 좌우하는 운명이 국가인 유형과 민생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멸망의 때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 방향은 주인 잃은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다른 방향은 재난을 피해 생존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황선명은 공간에 따라 상이한 실천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십승지는 일종의 '도

피'라는 소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진 곳이라면, 계룡 등의 차기 도읍지는 적극적인 저항사상의 실천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설명이다.[30] 정감록에서 점유, 거주, 방문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유형들도 공간의 이용 주체에 따라 지배 계층과 일반인으로 나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민생의 공간은 "현실적인 평화와 안락을 보장받는 소박한 세계"라는 특징이 있다.[31] 실제로 정감록을 위시한 역성혁명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왕조교체의 꿈을 가진 세력들은 정감록을 사상적인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십승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32]

이처럼 네 가지 공간 유형은 동질적이면서도 상이한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궁핍하고 혼란스러운 강원도 동쪽 산골에도 비옥한 땅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대립적인 유형들 간에도 중첩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왕조교체라는 예언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논리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망정흥설'이 실현되기까지 일련의 단계에 각 유형을 대응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언이 기피해야 한다고 한 흉지 마저도 예언의 설득력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흉지 형은 예언의 촉발을 담당하는 최초의 단계로 의미가 있다. 흉지는 정감록이라는 불온한 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징조들, 즉 한양이 기운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흉지에서의 사건들은 지각자에게 특정 행동을 개시할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정감록 사상을 공유하는 자들을 결집시키는 방아쇠가 흉지 형에서 시작한다. 스스로를 진인으로 여기는 주모자와 그 추종자들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역모를 모의한다. 이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선동한 사람들은 역모에 가담하거나 십승지를 찾아 피난하고자 할 때도 예언에서 말하는 흉조의 발생은 가장 효과적인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정감록에서는 예언과 공간을 연쇄적인 흐름 속에서 등장시키며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비로소 진인이 출현하여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중에 배 천 척이 올 것이다"라

30)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275-276.
31) 양은용, 「풍수지리설과 정감록」, 『종교문화연구』 19 (2012): 322.
32)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37-38.

는 「감결」의 구절은 왕도의 건설과 불운한 징조가 독립적인 사건이 아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말의 재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십승지로의 도피를 제안하며, 공간의 전개가 곧 예언의 전개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네 개로 구분되었던 공간은 결국 반왕조적 예언의 서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흉지 형은 암울한 현실을 대변할 뿐 아니라, 임박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리고 임박한 미래는 새로운 도읍지와 피난처를 통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성은 예언의 공간이 그 서사와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사실은 공간이 시간을 결정하는 정감록의 특징을 도출하게 하며, 공허한 컨테이너로서의 공간 인식에서 벗어나게 한다.

2. 공간의 강화와 변용

당시 예언을 향유하고 전승시켰던 사람들에게 공간이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역사적인 실천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중 왕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혁세적 사건은 관찬사료에 기록되어 예언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권력 투쟁에 나선 이들의 실천은 왕위와 연관된 왕도 형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왕실과 정감록 조우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739년(영조 15) ‘이빈(李濱) 사건’은 평안도 삼등현(三登縣)에서 북방 변경의 주민들이 무단으로 월경(越儆)한 일이다. 사건의 수인(囚人)으로 지목된 이빈 등의 무리는 '별건곤(別乾坤)'이라는 이상세계를 믿고 있었는데, 철옹성 일대를 별건곤으로 여겨 국경을 넘었다고 실토했다. 문책 과정에서는 백두산 아래에 백여 개의 마을이 있고 김거사(金居士)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영조는 이빈 사건을 심각하게 여겨 중앙에서 조사하게 하였는데,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철옹성을 경계한 것이었다. 특히 1735년부터 함경도 지방에 철옹성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김성백의 무리가 국경을 넘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대한 예언을 철저히 조

사하고자 함이었다. 문책 과정에서 예언의 실체 중 하나가 『정감록』으로 밝혀지며, 당시 함경도 지역에 문헌 형태의 『정감록』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조선의 통치체제에서 이탈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이 시기 예언의 주제였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정도로 응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조는 변경(變京)의 사상적 동기로 정감록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 (형조판서) 송인명이 말하기를, "(중략) **《정감록(鄭鑑錄)》의 일**을 도신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변경(邊境)에서 효시하게 함으로써 서북의 변경 백성에게 답하기를 상께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략) (우변포도대장) 김흡이 말하기를, "...게다가 북관은 몇 해 전부터 요설(妖說)과 와언(訛言)에 변방 백성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는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정감록》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김성항도 잡아와 끝까지 캐묻고, 조유제(趙裕齊)는 북도의 방백에게 분부하여 반드시 붙잡아 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33]

일명 '정감록의 일', 혹은 '정감록 사건'이라는 범주가 이빈 사건으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김거사나 철옹성은 정감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반왕조적인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예언의 실체가 포착된 일이었다. 영조 대의 "적어도 정부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역모와 관련된 사건"[34] 전후로, 일명 정감록 사건이라 할 법한 격돌은 해방 이후까지 눈에 띌만한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건의 접점으로 공간에 대한 주목을 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축옥사와 무신란을 잇는 계룡산 모티프는 조선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의 신도안 종교촌 형성에 이르기까지 모방과 변용을 거쳤다. 반복적인 사건의 등장은 계룡산이라는 공간뿐 아니라 정감록의 혁세적 희망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반면, 공간의 의미가 주체들의 욕구에 따라 변모하기도 했다. 몰락 귀족이 주도하는 반란일지라도 민중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는 일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모 모의에 있어서 정감록을 비롯한 비기가 동원된 이유는 민중을 선동하여

---

33)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6월 13 무자.
34) 김탁, 「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 『충청문화연구』 20 (2018): 20.

왕조교체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그런데 조선후기로 가면서 민중의 위치는 회유의 대상, 즉 주변의 위치에서 중심으로 변모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때 일반 대중은 평민 지식인이나 종교인과 결탁하여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곤 했다. 그러면서 정감록의 공간 유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

앞서 신왕도 형은 권력지향적이고 십승지 형과 피장처 형은 민생지향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보았는데, 정감록의 어떤 내용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진 것이 포착된다. 바로 계룡산이 그 사례인데, 특이하게도 이심 계열의 부록에는 십승지 중 하나로 공주의 계룡산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신왕토 형과 십승지 형이 자연스럽게 혼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신도안 종교촌이 형성되기까지 계룡산에 일반 민중들이 대거 이주했다. 이러한 실천 양상은 이상적인 국가의 중심지가 곧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흉조로부터의 피난이라는 맥락보다 복거지지의 이미지가 강화된 십승지의 변천에서는 "'위난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땅'과 '절경과 풍족함이 있는 복된 땅'이라는 두 개념이 별다른 합의 없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35] 결국 예언의 공간이 갖는 의미는 예언을 가장 활발히 소비하던 주체의 공간 인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십승지 목록이 확장되고 구체화되었던 까닭이 살기 좋은 땅에 대한 염원과 궁금증이었다고 한다면, 계룡산이 십승지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민중이라는 주체의 영향이었다고 유비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35) 양승목.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118.

Ⅳ. 나가며

지금까지 정감록에 언급된 공간을 계룡산으로 대표되는 신왕도 형, 말년의 화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 형과 피장처 형, 변란의 장소인 흉지 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이것은 지리적 요소에 불과한 공간이 어떻게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지리적 위치 외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주목한 공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네 가지 유형은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 예언의 서사를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각 유형을 지도상에 표시했을 때 나타나던 대립과 공존이라는 복잡한 분포가 이러한 특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는 흉지 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희망찬 미래를 쟁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신세계를 염두에 둔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보장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 호소력을 지닌 대상이 달랐다. 한양과 경쟁하는 신왕도 형은 권력을 탐하는 당쟁의 피해자나 지식인 계층의 관심사였으나, 십승지와 피장처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였던 일반 민중들에게 필요한 공간이었다. 한편, 모든 유형이 왕조교체라는 정감록의 서사를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흉지 형은 혁세의 때를 암시하는 유형으로, 왕도의 점유와 피난처로의 은신이라는 각기 다른 대응을 작동시키는 선재조건으로 기능한다. 즉, 공간 자체가 예언의 각 단계와 대응되면서 정감록 서사의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언의 서사를 구성하는 공간 유형의 상호작용과 공간에서의 실천들을 살펴보았다. 예언과 공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다뤄졌던 정감록과 그 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추후 정감록의 필사본에 있는 공간들을 분류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네 가지 유형의 활용도를 기대해 본다. 예언에 의해 재배치된 공간에서 민심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견함으로써 예언·비결 문헌 연구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예언, 정감록, 공간, 계룡산, 십승지, 피장처

투 고 일: 2023. 11. 01.
심사종료일: 2023. 11. 25.
게재확정일: 2023. 11. 27.

참고문헌

『秘訣輯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7568).

『선조수정실록』

『영조실록』

고마리. 「정감록에 나타난 계룡산의 성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3.

김신회.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한국문화』 84 (2018): 215-253.

김 탁. 「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 『충청문화연구』 20 (2018): 5-42.

매시, 도린 (Doreen Massey).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백승종. 「18세기 전반 서북(西北) 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 (鄭鑑錄)》」. 『역사학보』 146 (1999): 99-124.

양승목.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 63 (2016): 97–133.

양은용. 「풍수지리설과 정감록」. 『종교문화연구』 19 (2012): 312-324.

우 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1998): 219-250.

이능화. 『朝鮮基督敎及外交史』 下編. 京城: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이영화 옮김. 파주: 경인문화사, 2013.

최종성.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의 검토: 〈정감록(鄭堪錄) 편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40 (2022): 1-26.

_____.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 후기 위기설」. 『역사민속학』 61 (2021): 7-36.

한승훈.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조선 후기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의 형태들과 그 공간적 전략」. 『종교와 문화』 27 (2014): 27-55.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5.

홍진영. 「『鄭鑑錄』에 나타나는 언술의 특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2 (2014): 263-296.

Casey, S. Edward.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 University Press, 1987.

De Certeau, Michael.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Massey, Doreen. "Power-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edited by Jon Bird et al, 29-69. London: Routledge, 1993.

Relph,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1976.

Tuan, Yi-fu.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Abstract

Prophecy and Space:

Focusing on Spaces and Their Types in *Jeonggamnok*

Koh, Marie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hecy and space by focusing on the spaces depicted in the *Jeonggamnok* and categorizing them into four types. *Jeonggamnok* has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hought and actions of the people since its oral transmissi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continuing through the turbulent times of 20th century in Korea. Despite being a genre of prophecy literature, it provides practical guidelines by referring to spaces that exist in reality. There is a need to focus on spaces where meaning is generated through human practice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empty backgrounds. "New Capital Sites" (新王都), the first type, is the new center to replace Hanyang, exemplified by Gyeryongsan. This reflects the traditional idea that political power originates from the land, which makes the type most expressing the desire for regime change. Second, "Ten Haven Places" (十勝地) denote ten lands where one can escape from war and epidemics. This type does not directly challenge political power, but it has a subversive nature in terms of self-preservation for a new world. Third, "Places of Refuge" (避障處) are places suitable for hiding to live, featuring more extensive lists and detailed descriptions than the second type. Fourth, "Disaster Areas" (凶地) are places where wars, plagues, and famine are frequent and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se are signs of the decline of the dynasty, the bleakness of reality coexists with expectations for the future in the spaces. Each type exists within complex relationships of homogeneity or opposition, contributing to completing the narrative of prophecy by presenting various ways to recognize and address despairing realities.

Keywords: prophecy, *Jeonggamnok*, space, Gyeryongsan, Sipseungji (十勝地), Refuge (避障處)